

# 선화공주

조도깨비 영숙

# 善花公主

---

## 들어가며

---

〈조 도깨비 영숙〉 공연은 조 명인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아 여성 국극 ‘선화공주’ 전막을 무대에 올린다. 여성국극의 최전성기에 높은 인기를 누렸던 〈선화공주〉는 잘 알려진 설화 ‘서동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조영숙 명인이 선화공주부터 철쇠까지 1인 5역을 맡으며, 조 명인과 그의 제자 박수빈, 한혜선, 황지영, 변민지, 총 5명이 영상과 무대로 출연한다.

조영숙 명인이 73년이 넘도록 여성국극 배우로 살며 수천 번이 넘도록 공연한 작품 〈선화공주〉이지만, 태어나 처음 연기하는 주인공 선화공주 역이 주는 또 다른 새로움 속에서 미술작가 김동희의 시각으로 바라본 ‘무대’라는 공간은 영상과 실연이 공존하며 여성국극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아내는 무경계의 장으로 거듭난다.

●

조 도깨비 영숙  
2024. 7.26-27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 등장인물

---

서동 .. 서동요를 만들었다. 훗날 백제의 무왕이 된다.

선화공주 .. 진평왕의 딸,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된다.

철쇠 .. 서동의 막역한 친구

진주 .. 선화공주의 시종

석품 .. 신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

진평왕 .. 선화공주의 아버지

왕비 .. 선화공주의 어머니

백제인 .. 왕자 서동을 찾고 있는 백제인

∞ 그 외 시녀, 군사, 촌동 등 보조출연자들

## 1 · 촌동들의 합창

---

(음악 전주 자짓모리)

**합창** 먹어보세 먹어보세 이 감자를 먹어보세

(자진모리)

**독창** 이 감자가 무슨 감자 산감자냐 들감자냐 물씬물씬 밤감자로다

**합창** 먹어 보세 먹어 보세 이 감자를 먹어보세

**독창** 산이면 다 산이며, 감자면 다 감자냐

어느 산에 산감자냐 이산 저산 줄기 뺨어 산감자가 열렸으니

이 감자가 그 감자다 예라 먹자 어라 먹자

**독창(첼쇠)** 이 감자로 말할진데 우리 서동이가 말 못할 소원 있어

천령 위에 금수 간에 꽃 한 가지 보라 허고 이 감자를 지고 왔네

감자가 익을 적에 남 모르게 타는 가슴 오작이나 답답할꼬

**합창** 먹어 보세 먹어 보세 이 감자를 먹어보세

**일동** 핫핫핫

## 2 · 서라벌에 당도한 서동

---

**독창(서동)** 선화공주님!

(중중모리)

저것은 금성이요 이것은 반월성이라 저것은 명황성이요

저것은 금난성이요 이것은 취운성이라

어느 성중 궁실 안에 선화공주님 계시는가

서라벌 삼백육십방 십칠만호 남자도 많으련만

선화공주 미려무쌍美麗無雙이란 말을 듣고

천리원정 내 왔노라

어쩔거나 어이하리 어찌하면 좋드란 말이나

### 3 · 서라벌에 올려 띄지는 서동요

**서동** 애들아 내가 노래 한 마디 가르쳐 줄 테니  
이 소리가 서라벌 방방곡곡에 퍼지도록 불러야 한다

**촌동** 그래 그래 그래 해봐

**서동** 선화공주님은 남거짓이(남모르게) 정을 두고  
서동님을 밤마다 남모르게 안고 간다

**철쇠** 서동아 이제 네 소원은 풀었다. 그렇지  
(자진모리)

풀었구나 풀었구나 네 소원을 풀었네  
꿈속에서 한 마디로 네 소원을 풀었다  
자 오늘부터는 서동이가 임금님의 셋째 사위시라 태워라~

**서동** (늦은 자진모리)

호피자리 나는 싫고(호피자리 나는 싫고)  
은그릇도 나는 싫네(은그릇도 나는 싫네)  
금의옥식 내사 싫고(금의옥식 내사 싫고)  
감자를 먹고 물 마시고(감자를 먹고 물 마시고)  
아! 님과 날과 살고지고(아! 님과 날과 살고지고)  
어리렁 성동성 다리렁 실건  
어리렁 동성 다리렁 실건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공주 궁으로 어서 가세 가자!

### 4 · 선화공주, 서동요를 듣다

**음악**(목탁소리, 쇠소리)

**독창**(선화)(무장단)

문종성 번뇌당 지혜장 보리생 파지옥지는 음바라 제야 사과하

**음악** (서동요가 배경음악으로 들린다)

**선화** 저게 무슨 소리냐?

**진주** 해괴한 동요로소이다

**선화** 동요인줄 알겠다면 그 사실이 맹랑하구나

**진주** 마마 저자들을 당장 잡아 올리올까요?

**선화** (중모리)

그만 두어라 그만 두어라 철없는 아해들의 동요로다  
선화공주가 서동이를 남몰래 안고 간다 한들  
그 소리를 누가 곧이 들으며 곧이 들을 사람 뉘 있으리  
내가 영홍사 부처님께 원을 세워  
우리 어마마마께 태자 한 분 보고지고  
남거짓이 오고감을 비유하여 난 말로 내 알겠다

**석품** 공주마마 어이하면 아실는지 아실 듯도 하시련만  
얼음을 대하는 듯 차들을 대하는 듯 모르신다 하오시니  
일천간장 타는 회포 어느 뉘께 하소하오리까

**선화** (중중모리)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절 높은 이 나라의 예부를 맡은 이로  
과연지사 어렵고 귀중한 일 소홀히 정할손가

위로 임금님을 섬기시고  
아래로 만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로서  
어느 길이 없고 어느 법이 없어  
이 내 몸 면전에서 무례한 말씀을 한단 말이요

음악(바라소리, 목탁소리)

합창(후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백팔번을 도세

선화(독창) 대자대비 석가세존 우리 성상 성수만세

합창(후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백팔번을 도세

선화(독창)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전 비나이다

합창(후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백팔번을 도세

선화(독창) 만 백성의 염원읍소 태자 한 분 점지하소

합창(후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백팔번을 도세

서동 오! 공주님

(진양)

이 몸이야 천하다고 마음조차 천할손가  
입은 옷이 더럽다고 이 내 청춘 더러우라  
서러워서 못 살겠네 이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주님 앞에 죽어지면 나의 극락이 그 아니냐

철쇠 아이고 서동아 왜 이러냐 나랑 같이 죽자  
죽으려면 나랑 같이 가

서동 뇌라 이 놈아 이 손 놓으란 말이야(철쇠와 옥신각신하는 모습)

(중모리)

막지마라 막지를 말어라  
먹은 소원 못 풀 바에는 산다는 게 지옥이라  
대장부 한 번 결심 진시황의 칼이라도 막지는 못하리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부르던 노래 하나  
서라벌 이 곳 저 곳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퍼지게나 하여다오

철쇠 아이고 서동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마!

선화 잠깐! 무슨 까닭으로 한참 시절에 죽겠다는 것이요

서동 오! 공주마마

(진양)

슬픈 일이라 하오리까 괴로운 일이라 하오리까  
천령 넘어 머나먼 길 서라벌을 찾아 올 때

---

사연도 많았으며 소원도 많겠거늘  
의지가 없는 이 몸이 공주님을 뵈옵게 되니  
아닌 밤중에 등불을 대한 듯 하오이다

**선화** (중모리)

사람마다 사연 있고 소원도 많겠거늘  
의지가 없다기로 죽음이 당할손가  
대장부 앞 길이 창창커늘 경솔한 일을 어이하리  
차후는 장부답게 힘써 살기를 바라노라

**서동** (중모리)

죽은 목숨 살리시니 정연하신 그 은덕을  
한 시인들 잊으오며 하해 같은 그 성덕을 꿈엔들 잊으오리  
소원하나 있소이다 제 소원을 듣조시오  
어여쁘신 공주님께 진상코저 하옵난건  
백제 땅 비취구슬 귀고리를 바치오니  
이 진상을 받으시면 남은 여한이 없겠소이다

**선화** 보아하니 천한 백성 같은데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그대는 예사 천한 백성 같지 않노라  
내 그대에게 이 영락을 풀어 줄 것이니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섬기며 잘 살기를 바라노라  
진주야 가자

**진주** 예

---

**서동** 아 공주님 가슴에 걸려있던 이 영락...아! 못 살것다.

(중모리)

보고나니 못 살것네 보고나니 더 못 살것네  
이 영락이 구슬이면 이 구슬에 피가 있어 공주님이 될 것인가  
저 대궐 공주궁으로 공주님은 가시건마는  
이 내 몸은 어이하여 저기 저 대궐로 못 가느냐  
보고나니 더 못 살것네

(장면 연결음악)

**선화** 아바마마

이 선화가 감자 굽는 서동이라는 짧은이와  
해괴한 일이라도 있었던 말씀이오니까?

**진평왕** 바로 그 말이다

딸자식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내가  
어찌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에잇, 괘씸한 것!

**선화** 아바마마

(진양)

칭천벼락이 아니오면 이 것이 꿈이오리까  
억울한 누명을 어느 누가 밝혀보리  
백옥 같은 소녀 마음을 저 하늘이 아실까요  
어느 누가 날 못 먹어 헛소문이 생겼는지 억울하고 애매하오  
아바마마!

(장면 연결음악)

**석품** 대왕마마

서동이란 자와 철쇠란 놈을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네 이놈 서동은 듣거라!

(중중모리)

위엄이 사해에 떨치고 종묘사직이 유구하옵신 성상 앞에  
털 끝만치 속임없이 아뢰어라

네 이놈 여기가 감히 어테인 줄 아느냐

**서동** 검님 임금님 마로한의 대를 이어

권삼주 오백 오십 구호를 다스리시는 성상 앞인줄 아뢰오

**석품** 네 이름이 서동이렸다

**서동** 본명은 장이라 하오

**석품** 영흥사 숲길에서 선화공주마마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동** 말 못하겠소이다. 공주님을 뵈은 것이 대역지죄가 된다면  
아무 말 묻지 말고 차라리 이 몸을 죽여주시옵소서

**석품** 향간에 퍼진 소문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던란 말이나

**서동** (중중모리)

없소이다 없소이다 그런 일이 없소이다

만일 그런 일이 있고 보면 무슨 소원 있으리까

실속 없는 소문만이 서라벌 이곳 저곳에 퍼진 것만이 억울하오

**석품** 철쇠란 놈이 보았다는데 그래도 없단 말이나

**서동** 열 백번을 죽사와도 없소이다

**석품** 정녕 없을까

**서동** 아이고 원통하오

(자진모리)

다 같은 사람으로 높고 낮은 차별 있어 벼슬길이 끊어지고  
귀한 몸 못되어서 갖은 천대 받는 것도 철천지 한이온데

---

무삼 죄가 있다하고 죄 없는 이 서동을 이 형벌을 하시니까

**석품** (중중모리)

사람마다 신분이 다르고 빈부귀천이 있어  
나라법이 문란치 않거늘 추상 같은 법을 모르느냐

**서동** 법이란 누가 만든 법이요

**석품** 대왕마마 저 놈이 무슨 탄 속이 있는 놈인줄로 아뢰오

**진평왕** 그래서 공주에게 마음을 두었드란 말이냐

**서동** 마음을 둔 것이 잘못이오면

사람의 마음에도 빈부귀천이 있으리까

(중중모리)

선화공주님이 하도 그리워서 사모하고 생각다가 못하여  
노래로나 소원 성취 허라 하고 한 마디를 부른 것이  
아해들의 입에 올라 방방곡곡에 퍼졌소이다

**석품** 에이 여봐라 저 놈을

(노래하듯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오시에 대정문 밖에 방을 부치고  
저 놈의 목을 참하도록 하여라

**선화** 아바마마 이 번 소요에는 소녀도 죄인이옵니다

**진평왕** 누명을 벗었거늘 죄인이란 말이 당치않다

**선화** 아바마마 소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하오나

---

(중중모리)

고지식한 서동이가 소녀에게 마음을 두어  
소리 하나 퍼뜨렸다고 죽일 리가 되오리까  
만백성이 백성이면 한 사람도 백성이요  
죽일 죄라 할지라도 다시 생각 하옵소서

**진평왕** 에이 무엇을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서동** 공주님

**선화** 서동이

(전환음악)

**선화** (진양)

가을이 깊어가는 풀벌레 우는 소리 가슴 속에 사무치니  
내 가슴은 왜 이리 쓸쓸한가 모르겠네  
설레이는 이 마음 생각해도 모르겠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번뇌 망상이라 버릴겐가  
서동은 어찌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천한 몸도 불구하고  
불길 같은 정성으로 나한테다 마음을 두었나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

**진주** 공주마마

**선화** 그래 서동이 무어라 하드냐

**진주** 공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주먹 같은 눈물을 후두두둑 떨어뜨리더이다

**선화** 울어? 그리고 무어라 하드냐

**진주** (중모리)

주먹 같은 눈물방울 두 눈에서 주루루루 흘러면서  
고마워라 고마워라 공주님이 고마워라  
죽은 후에 서동의 무덤에다  
공주님 신 한 짝을 묻어 주신다 하옵시니  
공주님인 듯 가슴에 꼭 안고 고이 눈을 감더이다

**왕비** 선화야

**선화** 어마마마 야심한데 어인 행차시옵니까

**왕비** 걱정이 되어 나왔다

너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하니  
하루속히 예부경과 혼인하여  
그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상책인 듯싶다

**선화** 어마마마

(중중모리)

헛소문이든 아닌 소문이든 방방곡곡에 퍼진 소문  
서동을 죽이면 일조일석 없어지며  
다른 데로 정혼하면 그 소문이 없어지오리까  
이왕지사 버린 이 몸 검은 머리 삭뚝 잘라  
차라리 중이 되어 영홍사 절간에서 한 평생을 보내오리다

(배경음악)

**선화** 백제 땅 비취구슬…

네가 무엇이길래 나를 그다지도 사모했드란 말이나  
에잇, 천한 백성…가엾은 사람이로다

**서동** 공주마마

**선화** 영흥사 숲길에서 백제 땅 비취구슬을

나에게 준 그대가 서동인줄 몰랐노라  
옥중 고생이 어떠한가

**서동** 공주마마

(중중모리)

철천지 이 원한을 백번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풀지 못 할 원한이요 못 풀겠소 못 풀겠소  
개만 못한 사람된 게 뼈에 맺힌 원한이요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호피자리만 깔고 자고  
어떤 놈은 천인되어 거적자리 깔고 자나  
서동이도 대장부요 세상을 원망했지  
꽃 같은 공주님을 원망하리요

**선화** 훌륭한 대장부인줄 알겠노라

그대가 화랑이 된다면 국선이 되리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

**서동** 태산 같은 할 말 중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일 오시에 이 몸을 죽인다니 두 눈이나 고이 감고가게  
공주님이 입으시든 속적삼 하나만 주시오면  
천가지 소원 중에 백가지 소원을 풀겠나이다

(음악이 흐른 뒤)

**선화** 내가 입던 속적삼을? 그런 청이야 못 들어 주겠는가  
자 받으라… 내가 입던 속적삼이니

**서동** 공주마마… (운다)

**선화** 어이 우는고

**서동** 우는 것이 아니옵니다

**선화** 그 눈물은 무엇인고

**서동** 공주마마

(진양)

저승길이 있다 허면 저승에서 좋은 세상 다시 만나 본다지만  
이승에서 못 푼 한을 저승이면은 풀을손가  
북망산천 멀다 해도 이 한 밤이 지척일세  
공주님

(중모리)

이 몸이 죽은 후에 이산 저산 해 저물어 두견새가 울거들랑  
서동이의 울음인줄 혼자 생각 하옵시고  
제가 울던 이 뜰 아래 낙엽소리 들리거든  
서동이의 발자취인줄 혼자 짐작을 하옵시고

한 평생 길이길이 영화롭게 사옵소서

**선화** 그만 울고 일어나시오

목석이 아닌 이 가슴 설레이지 않을 수 없소

그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소

들어주겠는가?

**서동** 죽을 사람에게 무슨 청이오잇까?

**선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침실을 그대에게 빌려줄 것이니

내가 깔든 호피 위에 첫 닭이 울 때까지 쉬여감이 어떠하오

**서동** 그것은 안되오이다

**선화** 어째서?

**서동** 공주마마께 다시는 그런 누명을 씌워드리고 싶지 않소이다

**선화** 아무말 말고 나 하자는대로 하시오. 자! 어서!

(가벼운 음악)

**철쇠** (중중모리)

내 팔자 개를 주랴 개만 못한 내 팔자야 친구 하나 잘못 만나

경만 치고 혼만 났네 그래도 못 잊을 건 친구 밖에 또 있느냐

서동아 어디 갔냐 서동아 아참 요놈의 조동이

아니 서동이가 백제나라 왕자라며 아니 꼭 좀 찾아 달랬는데

왕자님이라? 왕자님?

하하! 참!

하두 꼬치꼬치 묻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보시오 대관절 당신이 누구간데 우리 서동님을 찾으시오

서동님을 찾아서는 집을 줄테요 은금을 줄테요

철천지 포한이 되는 벼슬길을 터줄테요

**백제인** 벼슬길만 길뿐이라

우리 서동님을 백제임금 피를 받아 부소산 꽃 피는 곳

사자수 구비친데 삼청궁녀 향기 속에 고이 자라 나옵시고

에라 만수 풍악소리 아방궁이 부럽잖게 반월성산 궁중에서

한 돌까지 계시다가 아바마마 승하하시자 난데없이 풍파일어

나이 어린신 탓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다니실 적

아!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소

하면서 공주마마께 바친 귀고리에는 백제나라 임금이라고

어라하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데 말이야  
하여튼 서동이를 얼른 만나보면 알겠지  
야! 서동아 서동아

(음악)

**선화** 인연 깊은 영홍사 숲길도 마지막이요  
영홍사 쇠소리도 마지막이로구나  
아바마마 어마마마

(진양)

만수무강 하옵소서  
불초소녀 오늘부터 서라벌의 공주도 어니웁고  
아바마마의 공주도 어니웁고  
어마마마의 딸자식도 아니오이다  
한 칼도 찍은 듯이 남남이 되고 보니  
가슴이 미여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어이 같거나 어이가리  
낮설은 변방 천리길을 귀양살이 어이가리

**진주** 공주마마,  
소녀도 공주마마를 따라가서 공주마마를 모시겠나이다

(중모리)

싫소이다. 소녀는 싫소이다  
공주님이 안 계신 빈 궁실을 무엇하러 내가 지키리까  
소녀도 따라가서 공주님을 모시오리다

**선화** (중모리)

멀고 먼 귀향살이 죄를 짓고 가는 나야 슬프지는 앓다마는  
너야 무슨 죄야 있어 나를 따라 귀양을 가리

**철쇠** 공주마마 우리 그저...

죄송하오나 우리 서동이가 바친

백제땅 비취 귀고리를 가지고 계시온지요

**선화** 가지고 있다마는 무슨 일로 그러느냐

**철쇠** 이 높은 글씨를 모르오니

공주마마께서 그 귀고리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보시옵소서

**선화** 응? 어라하라고 새겨져 있구나

**철쇠** 예? 어라하요

(자진모리)

맞았구나 맞았구나 어라하가 맞았네

어라하가 맞었으니 서동님을 찾아야지

공주님 염려 말고 잠깐만 참으시면

소인이 이 길로 가 서동님을 찾아 올 테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음악)

**서동** 선화공주 이 몸의 왕비가 되어 주시겠소

**선화** 감자굽는 서동님의 아내라도 되오리다

**서동** 공주

**선화** 서동님

**철쇠** (자진모리)

아이고 눈으로는 못 보겠네

아이고 두 눈으로 못 보겠네

꽃송이가 한 송인가 나비가 한 쌍인가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야

임금나비 공주나비 어화둥둥 한 쌍되어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야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야

(중모리)

**서동** 풀었네 다 풀었네 이 내 소원을 다 풀었네

세상 남자가 많다한들 우리 공주님을 당할손가

**합창**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다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구나

**선화** 서동님을 몰라뵈온 이 선화를 용서하오

세상 사랑이 크다 해도

서동님의 그 사랑을 어느 누가 당할손가

**합창**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다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구나

---

**서동** 선화공주님은 남거짓이 정을 두고

**선화** 서동님을 밤마다 남모르게 안고 간다

**합창**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다 에라 만수 에라 합환이로구나

가세 가세~~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살림 찾아가세~ 가세~

●

**대본**

김아부

**작창**

조상선

**안무**

조상선

**기록**

조영숙 2013년 3월 6일

**녹음**

예음스튜디오 2013년 7월 10일

**믹싱**

JCC아트센터 2021년 10월 9일

**소리**

조영숙

**장단**

이관용

**레코딩 엔지니어**

최남진

**믹싱 엔지니어**

최용석

**프로듀서**

김선국

**정리**

2021년 10월 12일

SYNC  
NEXT  
24